



김호령

KIA '8연승 후 연패' 6연전서 분위기 전환

프로야구 전망대

상승세를 달리다 잠시 주춤한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6연전을 통해 재반등을 노린다.

KIA는 지난주 주중 키움하이로즈에 스윙 승을 거둔 뒤 주말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루정시리즈를 당했다. 앞서 17일 두산에게 7-3승을 거두면서 632일 만에 8연승을 달렸으나, 18일과 19일 아쉽게 패배하면서 상승 흐름이 끊겼다. 그 결과 10승 9패 승률 0.526을 기록, 승패마진은 +1로 줄었다. 순위는 5위에 자리했다.

프로야구 중위권 순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KIA는 4위 SSG 랜더스와의 0.5경기 차다. 공동 6위 한화이글스·NC 다이노스와의 1.5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KIA는 이번 주 주중 수원서에서 2위 KT위즈와 맞붙은 뒤, 주말에는 광주에서 9위 롯데자이언츠(0.333)와 3연전을 치른다. 상위권과 하위권 팀을 차례로 상대하는 일정으로, 반등과 추락의 갈림길에 될 전망이다.

최근 KIA 타선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난주 팀 타율 0.286으로 리그 2위를 기록했고, 홈런도 5개로 2위,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809로 2위에 랭크됐다. 먼저 김선빈은 지난주 5경기에서 13타수 6안타 5타점 타율 0.462로 완벽한 타격감을 선보였다. 매 경기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21~23일 수원서 KT전
24~26일 광주 롯데전
승률 0.526... '리그 5위'
김호령 등 강력 타선 기대

김호령 역시 지난주 6경기에서 24타수 11안타 1홈런 5타점 타율 0.458로 맹타를 휘둘렀다. 특히 15일 키움전에서는 팀이 3-1로 이기고 있던 2회말 2사 2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썩기 투런포를 터트렸다.

카스트로도 지난주 5경기 20타수 6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300으로 호성적을 작성했다. 그는 16일 키움전에서 팀이 1-1로 균형을 유지하던 6회말 2사 1루에서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포를 폭발시키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김도영 또한 지난주 6경기 21타수 6안타 3홈런 9타점 타율 0.286으로 타격감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14일 키움전 5회말 2-2 동점 상황 1사 만루 찬스에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결승 만루포를 터트렸다. 이어 15일 경기와 18일 경기에서도 아치를 그리면서 지난주에만 3홈런을 몰아쳤다.

마운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담 올리는 18일 두산전에서 선발 등판해 6.1이닝 4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최근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제임스 네일도 16일 키움전

에서 5이닝 6피안타 3탈삼진 1실점으로 패투를 펼쳤다. 유독 승수와 인연이 없지만, 여전히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이적생 이태양은 최근 6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다양한 상황에서 올라와 1~3이닝을 책임지는 전천후 투수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김범수 역시 꾸준한 투구로 뒷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KIA는 이번 시즌 홈런 페이스가 좋았다. 현재 13승 6패 승률 0.684로 리그 2위에 위치해 있다. 평균자책점은 2위(3.95), 팀 타율은 1위(0.285)로 모두 KIA(평균자책점 4.54·팀 타율 0.273)를 웃돈다. 공수 균형이 잘 잡혀있는 데다 최근 10경기에서도 6승 4패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수원KT위즈파크에서 만날 KT는 21일 오원석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김태형을 선발로 투입한다.

KT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복귀해 롯데와 3연전을 치른다. 롯데는 최근 3연패에 빠지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KIA로서는 주말 시리즈에서 확실한 승수를 쌓아야 한다.

KIA가 이번 6연전을 통해 다시 상승세를 되찾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태양

영암 출신 김세영, LA 챔피언십 우승 문턱서 연장패

단독 선두 후 임진희·그린과 동타·추가 승부서 역전 허용

전남 영암 출신 김세영이 LPGA 투어 우승 문턱에서 통탄의 역전패를 당했다.

김세영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엘카바에로 컨트리클럽(파72·6679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JM 이글로스 챔피언십(총상금 375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연장 접전 끝에 해나 그린(호주)에게 패하며 임진희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날 김세영은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해나 그린, 임진희와 동타를 이루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승부는 18번 홀(파4)에서 갈렸다. 김세영과 임진희가 나란히 파에 그친 사이, 그리니가 과감한 공략 끝에 긴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그리니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대회 3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김세영에게는 더욱 아쉬움이 큰 경기였다. 3라운드까지 15언더파로 2위 그룹에 2타 앞선 단독 선두였던 김세영은 1번 홀(파5) 버디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6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8번 홀(파4) 버디로 만회하며 전반을 1언더파로 마쳤다.

하이라이트는 11번 홀(파5)이었다. 김세영의

세 번째 칩샷이 홀 10m 앞에 멈추는 듯했으나 경사를 타고 그대로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극적인 이글이 연출됐다. 단숨에 격차를 벌리며 우승에 한 발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후 흐름이 흔들렸다. 12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한 김세영은 15번 홀에서 버디로 다시 균형을 맞췄지만, 17번 홀(파3)에서 티샷이 벙커에 빠지는 불운 속에 보기를 범하며 추격을 허용했다.

그린은 13번 홀부터 16번 홀까지 4개 홀 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세 선수는 17언더파로 최종 라운드를 마치며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에서도 승부는 팽팽했지만, 마지막 홀에서 갈렸다. 김세영은 안정적인 플레이로 파를 지켰으나, 그리니의 공격적인 선택이 승부를 갈랐다.

김세영은 전남 3라운드에서도 막판 4연속 보기를 범하며 선두를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이날 역시 뒷심 부족으로 우승을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약 6개월 만의 정상 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한편 유해란은 이날 6타를 줄이며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LPGA 투어 JM 이글로스 챔피언십 준우승을 한 김세영. 배민

KIA,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 열린다...빈지노 시구

24~26일 광주 롯데전서 민희·최병찬 등 릴레이

KIA 타이거즈가 홈 3연전을 맞아 팬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브랜드 데이를 마련한다.

KIA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로 개최한다.

이번 3연전 동안 선수단은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24일과 25일에는 지난 시즌 브랜드 데이에서 선보였던 스트라이프 디자인 유니폼을 입고, 26일에는 세트 유니폼을 착용해 새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3일 내내 '승리 기원 전편 릴레이 시구' 이벤트가 진행돼 팬들의 관심을 끈다.

첫날인 24일에는 아이엠프 스튜디오 공동 대표이자 아티스트 빈지노가 시구자로 나선다. 빈지노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시구 당시 모두 팀 승리를 이끌며 '승리 요정'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그는

"다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설 수 있어 뜻깊다"며 "팬들과 함께 응원 열기를 나누며 꼭 승리를 이루고 싶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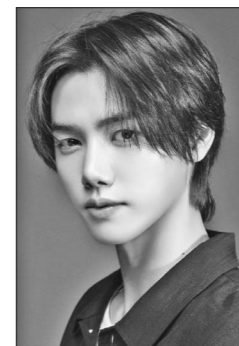
25일에는 그룹 크래비티의 민희가 시구를 맡는다. 민희는 "작년에 이어 다시 시구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배우 최병찬이 마운드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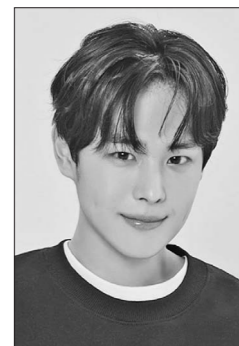
최병찬은 "2년 연속 시구를 맡게 돼 기쁘다"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치르고 우승까지 이어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브랜드 데이를 기념한 다양한 상품도 출시



빈지노



민희



최병찬

된다. 선수단이 착용하는 어센트 유니폼을 비롯해 플레이어 일러스트 티셔츠 등 총 9종의 굿즈가 팬들을 찾아간다.

이외에 현장 이벤트를 통해 아이엠프 스튜디오 티셔츠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팬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상품 구입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SNS와 온라인 팀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태권도인 나주 집결...900여 선수 경쟁

전국체전 1차 선발전 겸 도지사기·품새대회 개최

나주시가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 선발전을 포함한 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9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 선발 1차전 및 제42회 전남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제17회 전남도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태권도협회와 나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각 시·군 선수와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가

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 1차 선발전을 통해 체급별 우수 선수를 선발했으며 겨루기와 품새 전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지며 전남 태권도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도지사기 태권도대회와 도지사배 품새대회에는 초·중·고,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개최식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박경환 전라남도태권도협회장, 노용주 나주시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동안 길고 뒤은 품새 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나주를 찾은 전남 태권도인들을 환영한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길고 뒤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전한 경쟁 속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